

고양의 뿌리 깊은 나무

도시개발 속에서 고양을 지키고 있는 향토문화

도래울 마을,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잘 보존되고 있는 고양시의 향토문화 세 곳을 소개한다. 앞으로 모두 신도시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원형보존과 전승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게재한다.

글/사진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고양의 의병장, 석탄 이신의 선생의 시향제(時享祭)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도래울 마을에서 매년 올리는 전통제례다. 시향제는 고양시 향토문화제로 지정돼 있는 이신의 선생 묘역에서 봉행하며 전통제례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이신의 선생의 인물적 위상, 고양시의 민속 향토성 등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시향제에 참여하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종중의 후손들은 전라도 광주를 주축으로 전국에서 모인다. 과거 고양 지역에 큰 공적을 남긴 문정공 석탄 이신의 선생의 후손들은 인조반정을 피해 호남지방으로 내려갔다. 그 후 400여 년 동안 광주와 고양, 천릿길을 오가며 시제를 지내고 있다. 시제는 후손들이 선조의



전의이씨 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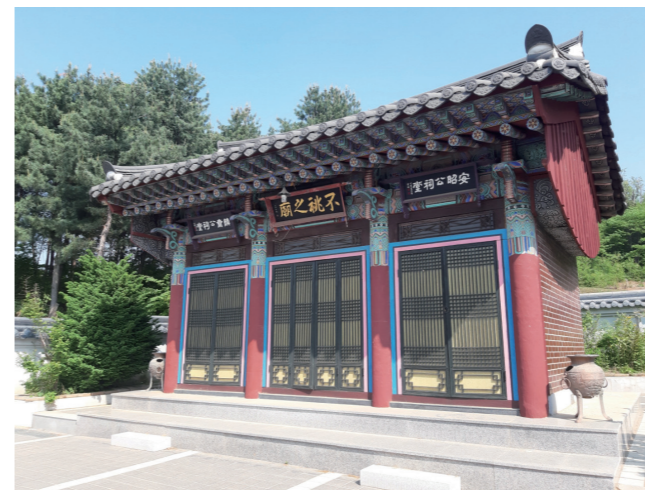
묘소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순서, 상차림, 제례 방식, 조상을 모시는 정신, 오랜 역사성 등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시제는 서양화, 고령화 등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어 원형보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6

사라져가는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99

600년을 지켜온 고양의 종가(宗家)댁



도내동 은못이 마을 한산이씨 사당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은못이(은지) 마을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종가댁이 남아 있다. 고려 말 충신 목은 이색 선생의 아들인 이종학의 후손들이 600년 넘게 종가댁, 선산, 묘역, 사당, 제례를 지키고 있다. 은못이란 마을 이름도 조선 단종대의 충신인 망월암 이축 선생에서 시작됐다. 한산이씨 묘역에는 좌의정을 지낸 이유청 선생의 묘소 등 총 4점이 고양시 향토문화제로 지정돼 있다. 본래 도내동과 성사동 사이의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으나 권율대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도래울 마을 개발 등으로 그 모습이 크게 변했다. 향후 종가를 포함한 마을 일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산치성, 봉제단 산신제



봉제단 산신단(거북바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셋말(간촌) 마을에서는 매년 10월 상달에 셋말, 방아골, 중모루, 은못이, 서재동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산신제례를 지낸다. 수백 년 전부터 제를 지내오고 있는 산의 이름은 '봉제산(奉祭山)'으로 '받들 봉(奉)' '제사 제(祭)'를 사용해 이름 자체에서 산제의 뜻을 담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무형문화유산이다. 마을 주민들은 일명 '거북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 아래에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린다. 주변에 넓은 공터와 기묘한 모양의 바위가 있어 인근 학생들이 소풍을 오던 장소이기도 하다.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봉제산 제례는 그 보존이 불투명하다.